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15-1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마약 문제 확산 우려 속, 2년 만에 더 강화된 금기

2025. 2. 5.

담당자 정종현 연구원

전화 | 02-3014-0997  
e-mail | jeongjh@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마약 문제 확산 우려 속, 2년 만에 더 강화된 금기: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주요 결과

- 2022년 12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고,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었다’는 혹자의 평가처럼 마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계심은 줄어들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024년 12월 6일~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마약류와 마약류 사용자, 마약류 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 2년 전 대비,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13%포인트(76%→89%)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다’는 8%포인트(79%→87%) 증가, ‘마음 먹으면 국내에서 마약류 구할 수 있을 것’은 11%포인트(77%→86%) 증가하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 현재 한국에서 ‘성인’의 마약 문제 심각하다는 83%, ‘청소년’ 마약 문제 심각하다는 80%로, 성인만큼이나 청소년의 마약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
- 대마 합법화와 관련하여 ‘의료 목적’(77%→86%)과 ‘의료 및 기호 목적’(82%→90%) 모두 반대 의견이 2년 전보다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합법화 논의가 활발한 대마이지만 우리 국민의 거부감은 2년 전보다 강화되었다.
- 개인적 즐거움 또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다’는 응답은 마약 97%, 향정신성의약품 96%, 대마 94%, 환각성 물질 97%로, 약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 10명 중 9명(92%)은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인식이다.
-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약 범죄 유형은 ‘유통 및 밀매’(48%)이며, 이어서 ‘제조·생산’(33%), ‘소지·사용’(10%), ‘권유·홍보’(8%) 순이다.
- ‘단속 강화’(93%)와 ‘처벌 및 형량 강화’(92%)가 국내 마약류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이어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84%),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시설 설치 확대’(78%), ‘전국민 대상 예방교육’(76%) 등의 순이다.

# 1 국내 마약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 2년 전 대비 국내 마약 문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경향 뚜렷

"**현재 한국 사회 마약 문제 심각**"(76%→89%),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야**"(79%→87%), "**마약,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할 수 있어**"(77%→86%)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년 전 조사](#)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76%였던 것에 비하면 13%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87%(오래 전부터 아니었다 20%, 이전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아니다 67%)로, 2년 전(79%) 대비 8%포인트 높아졌다. 마약류 구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86%(쉽게 구할 수 있을 것 38%, 어렵지만 구할 수 있을 것 48%)로 2년 전(77%) 대비 9%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내 마약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0명 중 9명(89%), 현재 한국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하다'

(단위: %)

2년 전 조사 대비 심각하다는 인식 13%포인트 상승



질문: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은 편이다+전혀 심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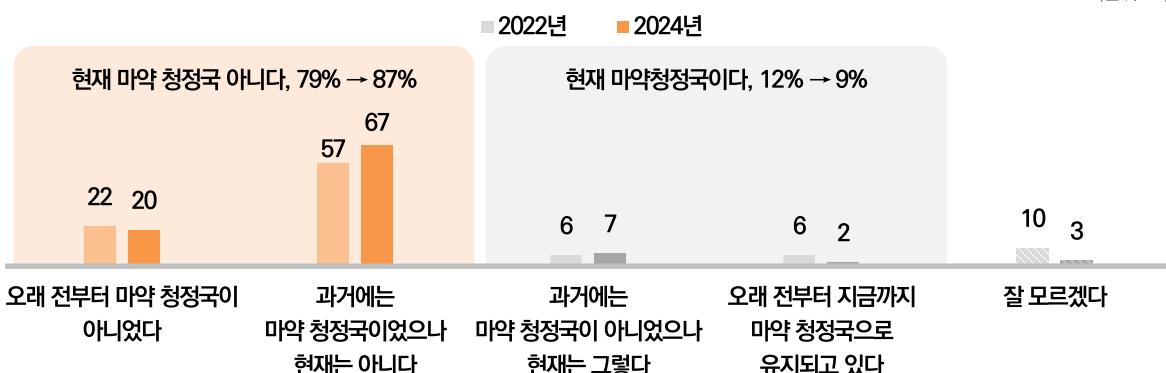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9명(87%), '현재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야'  
2년 전 조사 대비 마약 청정국 아니라는 인식 8%포인트 상승

(단위: %)



질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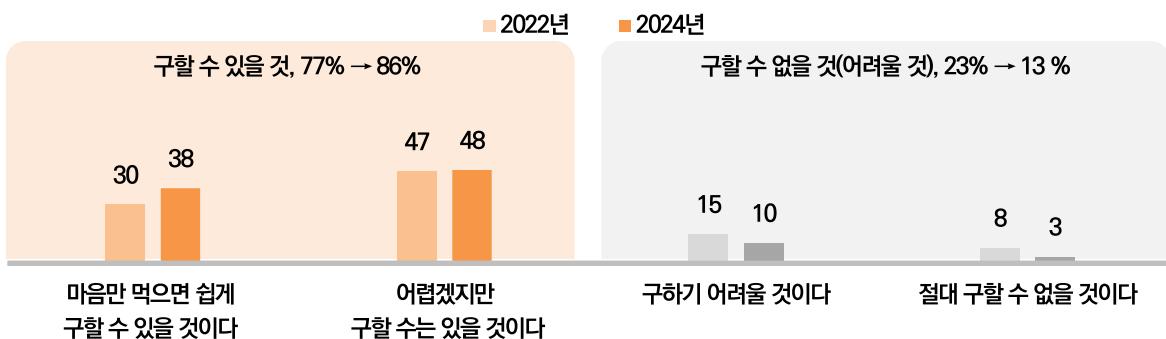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우리나라에서 마음 먹으면 마약류 구할 수 있을 것, 77%(22년) → 86%(24년)

## 2년 새 마약류 접근(구매) 가능성 높은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돼

(단위: %)



질문: 만약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청소년 마약 문제, 성인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인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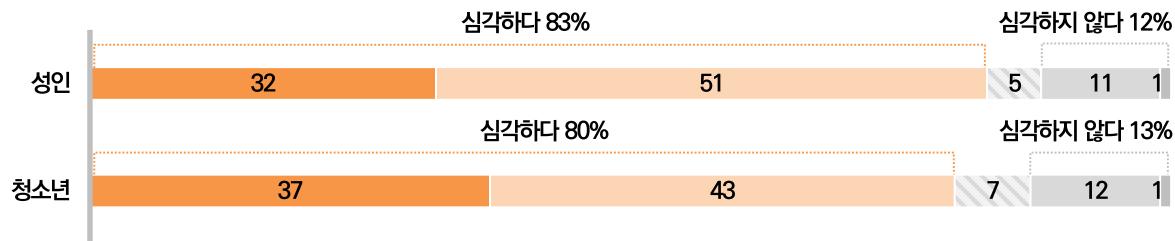
지난 20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 청소년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성인과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물어본 결과, 83%가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람도 80%를 차지한다.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의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마약 문제 심각하다' 83%, '청소년 마약 문제 심각하다' 80%

(단위: %)

성인 마약 문제 못지않게 청소년 마약 문제 심각하다고 인식

■ 매우 심각하다 ■ 심각한 편이다 ■ 잘 모르겠다 ■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질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각각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 마약류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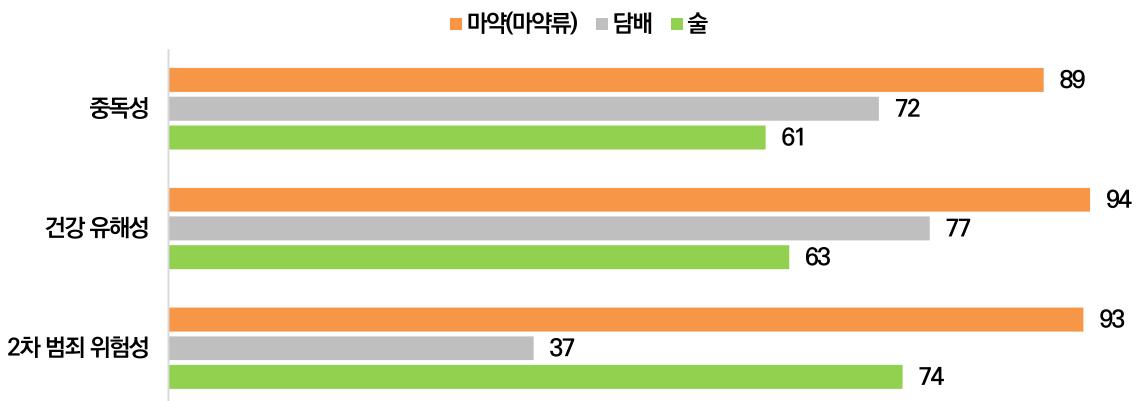
## 마약은 술·담배보다 중독성 강하고, 건강에 해로우며 2차 범죄 가능성 높아 위험해

술, 담배, 마약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 위험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중독성'의 경우 마약(89점) > 담배(72점) > 술(61점) 순이다. '건강 유해성' 또한 마약(94점) > 담배(77점) > 술(63점)로 동일한 순서이다. '2차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적은 담배(37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마약(93점) > 술(74점) 순으로 높다. 특히 마약의 경우 세 가지 항목 모두 90점 내외로 가장 점수가 높아, 국민 절대다수가 마약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있다.

(단위: 점)

## 술, 담배보다 마약의 중독성 강하고, 건강에 해롭고, 2차 범죄 위험성 높다는 인식 뚜렷

약물별 중독성, 건강유해성, 2차 범죄 위험성 인식(100점 만점)



질문: 중독성 – 술, 담배, 마약의 중독성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점을 만점으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건강 유해성 – 술, 담배, 마약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점을 만점으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2차 범죄 위험성 – 2차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술, 담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점을 만점으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 여기에서 2차 범죄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및 폭행, 강도, 음주 운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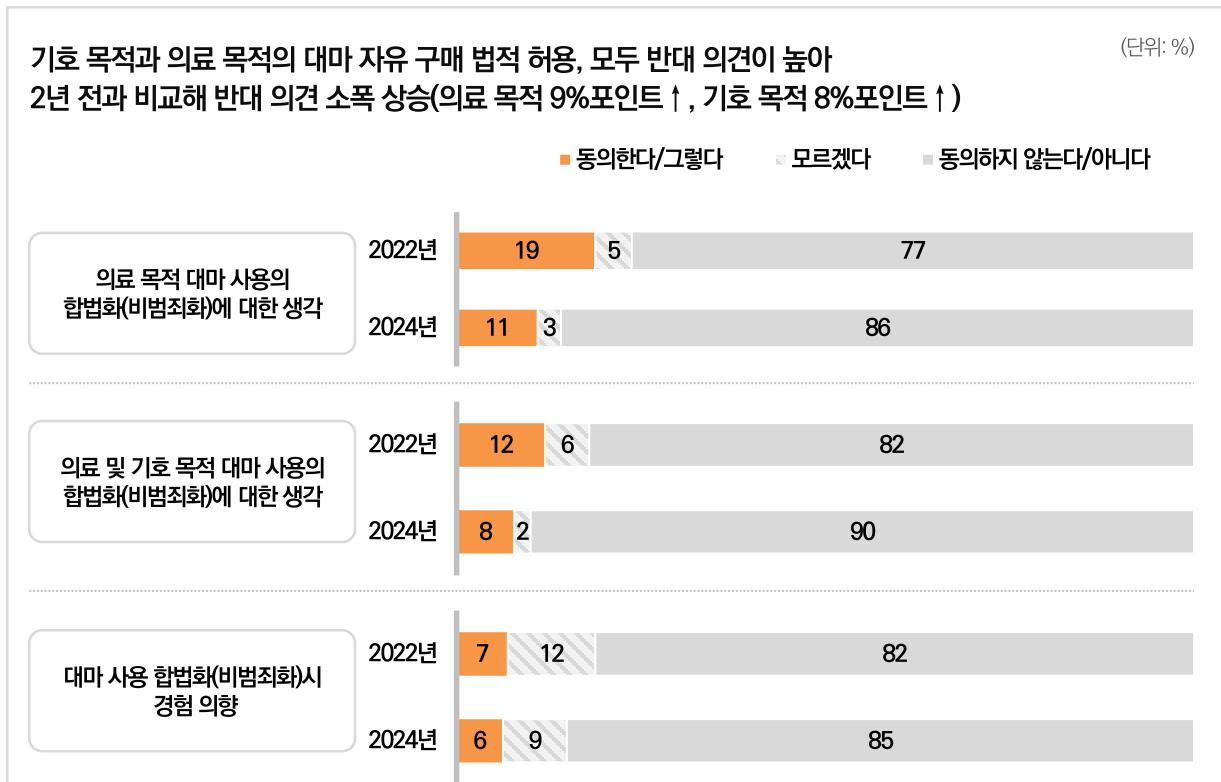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거부감 낮을 것이라 예상하는 대마도 거부감 뚜렷

### 2년 사이 대마 합법화 반대 의견 증가

### 약물 종류 상관없이 10명 중 9명 이상(94~97%)은 “마약류 사용해보고 싶다 생각한 적 없어”

마약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합법화 논의가 가장 활발한 대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의료 목적(86%)’과 ‘의료 및 기호 목적(90%)’의 대마 사용 합법화 모두 10명 중 9명 내외가 반대해, 대마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이 확인된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의료 목적(77%→86%)’과 ‘의료 및 기호 목적(82%→90%)’의 대마 합법화 모두 반대 비율이 증가했다. 더불어 대마 사용이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경험할 의향이 없다는 인식이 2년 전 대비 강화되었다(82%→85%).

개인적 즐거움 또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도 마약(97%), 환각성 물질(97%), 향정신성의약품(96%), 대마(94%) 모두 유의미한 차이 없이 ‘사용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술을 많이 마실수록, 담배를 피울수록,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을수록 경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위험군 탐색 및 맞춤형 예방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질문: (의료 목적) 국내의 경우, 의료용 대마 사용을 일부 질환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와 같이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에 한해 의사의 처방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목적) 캐나다나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 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 소비까지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 의향) 만약 대마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시행되어 개인의 대마 구입 및 소비가 자유로워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경험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의료, 기호 목적)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경험 의향) 그렇다, 아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 약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해보고 싶다 생각한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

(단위: %)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일수록 마약류 사용 가능성 있어 … 집단별 예방책 필요

전체	사례수 (명)	마약류(또는 환각물질)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								대마 합법화 시 경험 의향		
		마약		환각성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연령												
18~29세	(157)	3	97	5	95	5	95	11	89	12	74	14
30대	(149)	5	95	3	97	5	95	7	93	6	83	11
40대	(176)	2	98	2	98	5	95	8	92	7	82	11
50대	(195)	3	97	3	97	4	96	6	94	6	88	6
60대	(175)	1	99	1	99	2	98	2	98	3	91	7
70세 이상	(148)	2	98	2	98	3	97	4	96	4	92	4
음주 정도												
비음주*	(215)	1	99	2	98	1	99	4	96	4	91	5
저위험 음주*	(692)	3	97	2	98	5	95	7	93	7	84	9
고위험 음주*	(93)	5	95	5	95	3	97	10	90	7	79	13
현재 흡연 상태												
경험 없음	(520)	1	99	1	99	2	98	2	98	3	90	7
금연	(247)	3	97	3	97	4	96	8	92	8	85	7
흡연	(233)	6	94	6	94	8	92	13	87	12	73	15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												
없음	(761)	2	98	3	97	3	97	5	95	5	87	9
1~2회	(163)	4	96	2	98	4	96	10	90	10	80	10
3회 이상	(77)	5	95	3	97	8	92	13	87	12	81	8

질문: 약물 사용 생각 유무 –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약물을 개인적 즐거움이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

대마 경험 의향 – 만약 대마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시행되어 개인의 대마 구입 및 소비가 자유로워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경험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비고: 해당 문항에서 아래 각 약물별 예시를 설명문으로 제시하였음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펜타닐, 모르핀, 헤로인 등

※ 향정신성의약품 : 프로포폴, 필로폰(히로뽕), 엑스터시, LSD, 물뽕(GHB) 등

※ 대마 : 마리화나, 해쉬쉬 등

※ 환각성 물질 : 시너, 접착제(본드류),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등

\* 비음주: 최근 1년 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음(평생 비음주 포함)

\* 저위험 음주: 최근 1년간 '주2회 미만 음주' 또는 '주2회 이상 음주자 중, 한 번에 7잔 미만(남자) 또는 5잔 미만(여자) 음주'

\* 고위험 음주: 최근 1년간 '주2회 이상 음주자 중, 한 번에 7잔 이상(남자) 또는 5잔 이상(여자) 음주'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 강해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고(91%)',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95%)', '노화가 빠를 것이고(93%)', '인내심이 부족하다(93%)'는 의견에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한다. 나아가 마약 사용자는 '사생활이 문란하고(87%)', '다른 범죄 이력이 있을 것(81%)'이라는 의견에도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한다.

### 마약류 사용자의 도덕성, 건강 상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해 마약 문제 외 사생활, 다른 범죄 이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단위: %)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인식

■ 동의한다(매우+대체로) ■ 모르겠다 ■ 동의하지 않는다(별로+전혀)



질문: 다음은 마약 사용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의견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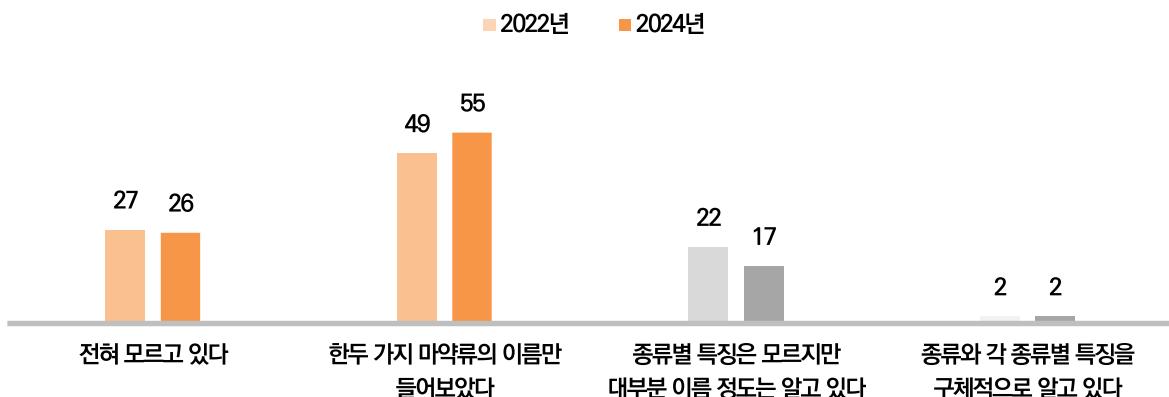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국민 10명 중 8명,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은 잘 몰라'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1%)은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26%) 한두 가지 이름만 들어본 것(55%)으로 나타났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마약 구매 가능성 또한 높은 사회로 인식되지만, 일부에게만 익숙할 뿐 여전히 마약은 다수 국민에게는 낯설고 금기시되는 대상인 것이다. 2년 전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22년(76%)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관되게 강화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마약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명 중 8명(81%)은 마약류 종류와 특징 전혀 모르거나(26%), 한 두가지 이름만 들어봐(55%)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2%에 불과

(단위: %)



질문: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마약류 범죄의 처벌·단속·예방에 대한 인식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 약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마약 범죄는

'유통·밀매'(48%) → '제조·생산'(33%) → '소지·사용(투약)''(1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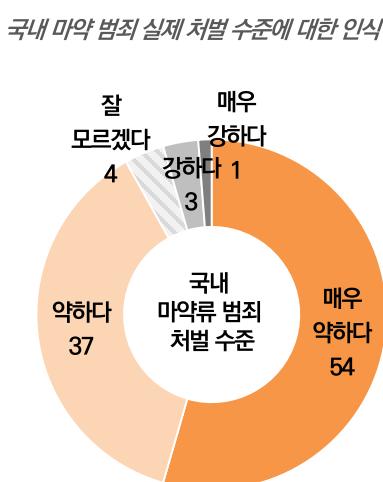
202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구속된 사람의 비율'과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 정보를 제공한 후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9명(91%)은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마약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48%)이 '마약 유통 및 밀매'를 꼽으며, 이어서 '마약 제조 및 생산(33%)' > '마약 소지 및 사용(10%)' > '마약 권유 및 홍보(8%)'의 순이다.

10명 중 9명 이상(91%), '국내 마약류 범죄 처벌 수준 약하다'

(단위: %)

강력 처벌 필요한 마약 범죄는

'유통 및 밀매'(48%), '제조 및 생산'(33%), '소지 및 사용'(10%), '권유 및 홍보'(8%) 순



강력 처벌 필요한 마약 범죄 유형



질문: 처벌 수준 인식 – 국내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력 처벌 필요 유형 – 다음 마약 범죄의 유형 중,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마약 범죄 처벌 수준 인식 문항은 202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구속된 사람의 비율'과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을 같이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구속된 비율은 12%,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은 집행유예(40.6%) > 3년 미만(30.7%) > 7년 미만 (10.6%) > 벌금(2.9%) > 1년 미만(8.3%) > 기타(3.2%) > 10년 미만(2.5%) > 10년 이상(1.2%) > 사형·무기(0.0%) 등의 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대검찰청, 2024))

##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기구(마약청) 필요성에 86%가 공감, 2년 전 대비 7%포인트 상승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는 과반(56%)이 '동의 안 해'

마약 범죄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에는 86%가 동의한다. 이는 2년 전(79%)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마약과 마약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졌음을 보여준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반(56%)이 동의하지 않는다. 2년 전에는 지원 동의 50%, 비동의 45%로 지원 의견이 더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2년 전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아가 치료 및 재활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한층 강화되었다.

### 마약청 신설 동의 86%, 22년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

(단위: %)



질문: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에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을 설치하여 관련법 제/개정, 범죄 수사, 관련 기관 지휘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마약 범죄 수사기관들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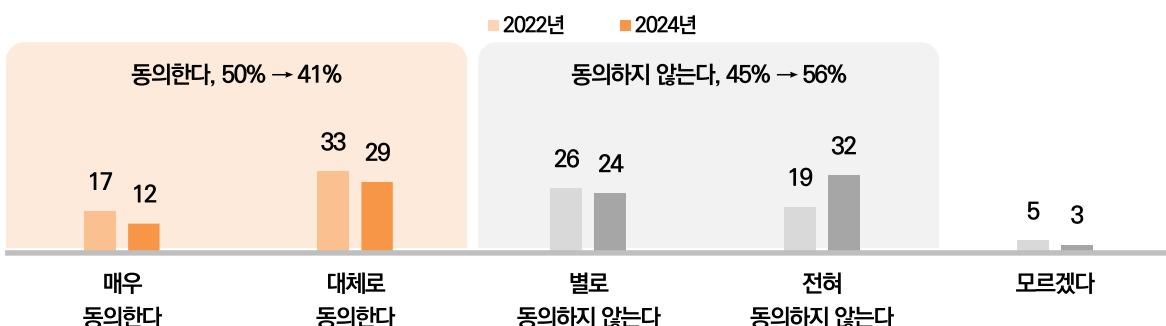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 과반 이상(56%),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 정부 지원에 비동의

(단위: %)

22년 조사에서 '동의'(50%) > '비동의'(45%)였으나 24년 조사 '동의'(41%) < '비동의'(56%)로 역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상승(19%→32%)



질문: 다음은 마약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입니다.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2. 23. ~ 26. // 2024. 12. 6. ~ 9.

## 국내 마약류 문제 개선에는 예방/재활/치료보다 '처벌'과 '단속'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 강해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단속/처벌/예방/치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단속 강화(93%)'와 '처벌 및 형량 강화(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예방, 치료 및 재활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이 84%로 가장 높은데, 청소년 마약 문제를 성인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일부 마약을 합법화하여 정부가 유통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53%로 제시한 10개 항목 중 가장 낮다.

'단속 강화', '처벌·형량 강화'가 마약 문제 개선에 효과 있을 것, 각각 93%, 92%  
 예방, 치료, 재활 관련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58%~84%)



질문: 선생님께서는 마약 범죄 관리(단속, 처벌, 예방, 치료 등)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가 국내 마약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비고: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가 있다+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6. ~ 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마약류 문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수시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검찰 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 및 수사 체계를 강화했고, 마약류 범죄 대응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실제로 2024년 식약처의 마약 관련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3억원 증액된 377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한 노력 탓일까, 혹은 정말로 마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일까, 2023년 한 해 동안 단속한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도 18,395명 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국민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마약 문제는 심각하고, 마약은 위험하며, 마약에 대해 알고 싶지 않고, 재활과 치료보다는 처벌과 단속이 중요하며, 대마 합법화에도 반대'라는 일련의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2년 사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강화된 경계심이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개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강화된 경계심을 마약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마약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마약이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강화된 국민의 경계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li></ul>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1월 기준 전국 약 94만 명)</li></ul>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li></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000명</li></ul>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math>\pm 3.1\%</math></li></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li></ul>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li></ul>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요청 32,727명, 조사참여 1,44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1%, 참여대비 69.2%)</li></ul>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4년 12월 6일 ~ 12월 9일</li></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li></ul>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